

음악에 젖어 사진 음미하며 사색 '한모금'



'장보러 가기'

중국의 '喜怒哀樂'

해외문화예술공간, 6월 1일까지 왕치양전

해외문화예술공간은 다음달 1일까지 중국작가 왕치양(Wang Qiang)을 초대해 '희로애락'(喜怒哀樂)을 주제로 두 번째 중국작가 초대전을 진행한다.

중국 흑룡강성 출신인 왕치양은 중화미술학원에서 관화를 전공했다. 특히 중국지폐와 옷이라는 소재를 이용해 그림을 그려 변질된 현대인의 문제를 다룬 작가로 유명하다. 특히 2008년 북경올림픽을 전후해 'SBS스페셜'을 통해 국내에 소개된 중국 미술계 대표작가 중 1명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기존 유화 작품에서 벗어나 중국의 민족성과 문화가 느껴지는 수묵화를 18점 선보인다. 중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이질감보다 정서적 공감을 주는 작품들이다.

작가는 작품 속 인물들을 독특한 색감과 표정으로 담아냈다. 특히 '자전거 타기', '장보러 가기', '부부', '오리 세 마리', '남녀의 포옹' 등 작품들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우리 일상에서 잔잔하게 느껴지는 희로애락을 교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다. 문의 062-233-9011.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나히덕 시인과 '북콘서트'

광주 PBC, 16일 초청 특강



우리 지역 대표 여류 시인이자 조선대 문예창작과 교수인 나히덕(사진) 시인과 함께 하는 북콘서트가 열린다.

광주평화방송은 오는 16일 오후 3시 광주 시 서구 치평동 평화방송 5층 공개홀에서 나 시인이 최근 발간한 시집 '말들이 돌아오는 시간'을 주제로 북콘서트를 진행한다.

섬세하고 따뜻한 시선, 간명하고 절제된 형식으로 생명이 깃든 삶의 표정과 감각의 깊이에 집중해온 나 시인의 일곱 번째 시집 '말들이 돌아오는 시간'을 통해서 시인으로서의 삶과 작품세계를 엿볼 수 있다.

나 시인은 1989년 '뿌리에게'로 등단해 김수영문학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현대문학상, 이산문학상, 소설시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특강은 무료로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문의 062-231-7704.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카페 '후두독'에 연결된 비밀(?) 지하통로를 따라 내려간 갤러리 '질러시'에서 지성배 대표와 사진작가 홍성배씨가 전시작품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문화가 흐르는 공간

1 순천 아트카페 '후두독'

'후두독 후두독... 불비가 내리는 오후, 젊은 남녀가 내리는 비를 두 손으로 막으며 뛰어간다. 그들이 향한 곳은 시와 사진,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카페다. 옷에 묻은 빗물을 털어내고 창가 테이블에 자리잡은 그들은 향기로운 커피를 즐기며 창밖의 비를 바라보다 이내 책을 읽는다...'

순천대 앞에 위치한 아트 카페 '후두독'은 지역 대학생이라면 한번쯤 들러봤을 법한, 지역내에서는 제법 이름난 복합문화공간이다. 지인들과 함께 차를 마시고 사진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으며 때로는 공연을 즐길 수도 있다.

"비가 내리는 날, 멋드러진 카페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책을 읽는 모습은 많은 이들의 로망이요. 그런 의미에서 카페 이름을 '후두독'이라고 지었어요. 웬지 비가 내리던 더 찾고 싶은 나만의 아지트 같은 공간 말이죠."

'후두독'이라는 카페이름에 대해 묻자 지성배(47) 대표가 친절하게 설명해 준다.

'후두독'은 예술창작과 문화교류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 '상상문화발전소 1839(이하 1839)'가 운영하는 공간이다.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지 대표는 이 곳 순천에 카페 '후두독'과 갤러리 '질러시', 사진창작 스튜디오 겸 레지던스 공간으로 활용하는 '순천만 절자요 게스트 하우스'를 함께 운영중이다.

카페에는 깨알같은 볼거리가 곳곳에 숨어 있다. 뜻이 맞는 동기들과 조용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품은 최고 인기 공간이며, 벽에 둘러싸인 듯 구석에 위치한 테이블에서는 조용히 사색을 즐길 수도 있다.

오래된 필름 카메라가 테이블에 앉은 방문객들을 촬영하듯 놓여있고, 벽에는 순천만을 배경으로 한 사진작품들이 전시돼 있다. 수십권의 시집들도 시인을 꿈꾸는 문학도들에게 최고 인기다.

카페 '후두독'은 최근 '후두독 프랑스'로 명칭을 바꾸고 프랑풍 안주 요리와 크레페를 선보이기 시작했다. 크레페는 브런치로, 안주요리는 저녁 이후 간단한 맥주와 와인

과 함께 곁들일 수 있다. 프랑스에서 유학하며 요리를 배웠다는 지 대표의 아내가 직접 요리를 만들고 있다.

카페 한편 지하로 통하는 비밀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사진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갤러리 '질러시'가 숨어 있다. 전시는 사진작품을 위주로 한다. 활발하게 작품활동을 하는 작가들을 초대하거나 레지던스 작가들의 작품을 릴레이 전시하기도 한다. 올해 레지던스 입주작가들의 전시는 김혜원전(6월 20일~7월 17일), 유별남전(7월 18일~8월 21일), 이권영전(8월 22~9월25일) 등으로 예정돼 있다.

'질러시'에서는 정기적으로 인디밴드들의 공연도 펼쳐진다. '질투'라는 뜻을 가진 '질러시'라는 이름도 공연을 보러오는 이들에게 통하는 명칭이다. 한달에 한차례씩 진행되는 공연은 흥대에서 활동하는 인디밴드나 광주·전주·부산 등에서 활동하는 밴드들이 젊은 관객과 마음껏 소리지르며 음악을

즐기다 가곤 한다.

오는 23일 오후 7시에 예정된 5월 공연은 신재창·김현성씨의 토크 콘서트로 진행된다. 김현성씨는 '이등병의 편지' 원작자로 잘 알려진 싱어송라이터다.

순천만 인근에 위치한 '순천만 절자요 게스트하우스'는 사진창작 스튜디오 겸 레지던스 공간이다. 옛 우체국으로 이용되다가 비어있던 곳을 임대해 지성배 대표가 사진 작업실로 시작했던 게 벌써 10년이 넘었다.

사진작가를 위한 레지던스 공간으로는 국내 유일할 것이라는 이곳은 작가들이 거주하는 공간과 사진 갤러리, 그리고 "기계처럼 디지털 카메라를 다룰 줄 모른다"는 지 대표의 필름사진을 인화할 수 있는 암실도 갖추고 있다. 개인 작업실로 시작한 이곳은 게스트하우스로, 작가들의 레지던스 공간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지 대표는 지난 2012년부터 레지던스 입주 작가들과 함께 남해안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다. '남해안 프로젝트'는 우리 땅으로부터 바다에 잇닿은 남해 연안 지역의 인문·지리·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사진으로 기록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올해는 파인아트 작업을 하는 김혜원, 이권영 작가와 다크멘터리 작업을 하는 유별남 작가가 선정됐다.

"카메라에 비친 자연은 눈에 비친 자연과 분명히 달라도. 카메라에는 의식적으로 만들어진 공간 안에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 불췌 들어선다고 합니다. 작가들과 함께 한 남해안의 풍경들을 보면 언뜻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지 대표는 앞으로 남해안 프로젝트를 이어나갈 생각이다.

/순천=이보람기자 boram@·사진=최현배기자 choi@

비영리단체 '상상문화발전소 1839'

레지던스 '게스트 하우스'와 함께 운영

카페 지하 '질러시 갤러리'서 사진전

23일엔 신재창·김현성씨 토크 콘서트

▲'아트카페 후두독' 전경.



나왔다! 조라고 부르기엔 아까운 속살이 조동조동하고 부드러운 **왕대구**가 드디어 시판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왕노가리, 왕가리비, 맥터, 산낙지**

(주)해감은 광주 상무병원 건너편에 해감 노가리호프 본점을 개업하였습니다.

와! 곁들이면 이것이 바로 **금상첨화!!**

가맹비가 따로없는 새로운 형식의 프랜차이즈 기업 (주)해감농수산에서 자신있게 견해드리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총판 및 체인점 문의
대표전화 : 1899-0618 (062) 654-0633 FAX : (062) 654-0644

동신판매업신고필
농협보증 에스크로 가입
특허출원 41-2014-0016935
사업자번호 408-86-08501
계좌번호 농협 301-0147-7265-51

HG **해감 노가리 호프**
농업회사법인 (주)해감농수산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635-21

제8기 인문학강좌 수강생모집 **인문학, 그 향을 말하다**

5.15-7.03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9시(8주) / 동구청 앞벤처빌딩 7층 대강당

개강일시 2014년 5월 15일(목) 저녁 7시 등록비 100,000원(입자 2회 포함)
접수문의 대동문화재단 문화사업팀 TEL. 070-4496-5510, 062-674-6567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daedong.com 공지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강의일정	날짜	내용	강사
1강	5.15	김성녀의 소리사랑 이야기	김성녀 배우, 국립청극단 예술 감독, 중앙대 교수
2강	5.22	Again and Again (Again 1976)	채은옥 가수(빛물, 석별, 어느날 갑자기 등)
3강	5.29	사대부의 유배와 낙남 -그 명과 배	조상열 사대문화재단 대표, 인문학 전문 강사
4강	6.5	문화융성시대-내 삶을 바꾼 문화예술	임홍식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회장, 전 중소기업청 차장
5강	6.12	화가의 정열-죽설현 원림	박태후 문인화가, 죽설현 대표
6강	6.19	책이란 무엇인가 -말의 뿌리, 글의 뿌리 그리고 책의 뿌리에 대하여	이기용 도서출판 열화당 대표, 파주출판단지 이사장
7강	6.26	도전하면 꿈은 이루어진다	조용갑 성악가, 베르디 국제 콩쿠르 1위 수상
8강	7.3	관용으로 꽃 피우는 문화	서경주 전 광주MBC 사장, 영국카드프 웨딩드레사

현장 답사 1회, 5월 24일(목) 강릉 선교장-허준 생가-경포대 2회, 6월 5일(금) 송북 재현 의림지-단양 팔경-고수동굴

※ 강의 일정 및 현장 답사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민지원 대동문화재단 **빛고을 문화대학** 주최/주관 **광주광역시** **www.gwangju.com** 대동문화재단